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00 호 현대불교 21
2022년 8월 24일(음 7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고덩어리를 면하려면 그 고덩어리가 나온 자리에 그냥 되놔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 사람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어떤 어머니가 아들 낳았다고 좋아했을 테고 또 나도 인간이고 그런데, 생각하면 가엾고 안됐지. 그러니까 동생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또는 그 때 생각을 안 해봤지마는 지금 얘기하자면 동생이라도 몇째뻘 동생이더라고.

그래서 '에이휴, 만약에 내 동생이 저런다면 얼마나 속이 썩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아깝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 손에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그것도 없어. 왜? '내가 하고 갈 게 있다. 내가 뭘 해야 할 텐데. 내가 꼭 있어야만 해.' 이런 건 다 부질없는 얘깁니다. 아, 죽을 때 되면 그냥 죽으면 고만이고, 살 때 되면 사는 거고 그냥 그저 길을 걸어갈 뿐이죠. 구태여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너희들이 잘산다' 이럴 것도 없어요. 또 '내가 없으면 못산다' 이럴 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 나왔으면 다 자기네 나오기 이전, 전생에서 짓고 나온 대로 악업이 많으면 더 많이 고를 당하고, 선업이 많으면 고를 덜 당하죠. 아, 국회의원도 표가 많으니까 국회의원 됩디다.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악업 선업을 짓는 것도.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이 내 한 생각을 잘 돌려서 나라고 하는 거를 다 버린다면 이 속에 든 악업 선업도 다 그냥 송두리째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덩어리 하나 착을 두지 않는다면 멸(滅)하게 되고, 도(道)가 돼죠.

그런 거와 같이 서산 대사께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길을 걸었답니다. 그 길을 걸었는데 그때 시대에는 칼이나 활을 썼죠. 창이나 그런 걸 썼죠. 비행기도 없었고 총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그 환경대로 육신통을 안 하면 아주 어려웠을 때고, 또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도 필요했고 어떠한 난리가 나도 그러한 술수가 참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육신통의 술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됐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끌어 가고 참, 고도로 발전을 시켜서 대도를 이루신 분이 서산 대사죠.

그랬는데 어느 날 사명 대사가 말입니다, 새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선 덜렁덜렁 왔단 말입니다. 방에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빼먹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건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얘기만 합시다. 그래 와서 하는 소리가 새를 손에 쥐고 "이 새를 날려 보내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하거든. 그러니깐 서산 대산 아무 소리 없이, 같잖다는 것도 되지만 아무 소리 없이 일어나서 문지방을 걸터 짚고 서서, "내가 나가겠느냐 들어오겠느냐?"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 대사가 고만 허무하게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절을 한 번 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해 놓곤 '그래도 못 믿어. 저놈의 술수는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뭐, 육신통 했다고 정말 대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내가 알 바가 뭐야?' 이러면서 또 한 가지 계책을 쓴 것이 계란 쌓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아래서부터 탁 쌓아서 지붕까지 붙였는데 서산 대사가 쓰윽 그걸 보더니 하는 소리가 "그 장난 참 심하구먼." 하고선 "그럼 나도 장난 좀 한번 해 볼까?" 하곤 지붕에서부터 내려 꽂거든요. 허허허.

아, 그러니 아래까지 턱 내려놓고 하는 소리가 "그래, 이것이 옳은가 그것이 옳은가?" 이러고 묻더라는 겁니다, 사명 대사한테. 그러니까 사명 대사가 거기서 또 그냥 "아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는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백배사죄를 했죠.

그래서 이럭저럭 지내다가 어느 날 어디 길을 걷게 됐습니다. 사명 대사는 스님을 쫓아가는데 또 속으로 '키는 조그맣고 몸뚱이는 가냘프고 조그만 저것이 대도를 이루었을까?' 또 의심이 난 겁니다, 인제. 허허허. 못생기기도 했지마는 '저거, 아유!' 그 사명 대사 자기는 출중하고 아주 훤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선 스님을 보면 아주 천지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인제 가는 거죠. '저거 정말 대도를 이루었을까, 과연? 내가 정말 스승으로서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서 뒤에 슬슬 쫓아가니깐 그냥 착 돌아다보면서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이놈아! 그렇게 못 믿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걸로 보이걸랑은 지금 빨리 가라!" 하고 말이야. 그냥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러니깐 거기서 자지러졌단 말이야, 그냥. 자지러졌어요. '야! 속까지 들여다보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걸 어쩌나.' 하고선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굳혔습니다. 뭘 굳혔느냐 하면은,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인제는 믿겠다는 각오가 섰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거꾸로 간대도 "네, 옳습니다." 했고 바로 간대도 "옳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지냈는데 어느 날 두 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구렁이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서산 대사께서 사명 대사를 천야만야한 절벽으로 탁 밀어 던졌죠. 그러니 천야만야한 데로 떨어질 수밖에. 떨어지다 보니깐 자기 가는 지금 그 절의 부목이 나뭇짐 해다 놓은 큰 더미 위에 뚝 떨어져서 자기 몸뚱이가 출렁대더랍니다. 그래서 떠다 밀어도 요런 데다 떠다 밀었으니 "참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는 올라가서 백배사죄를 했죠.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떨어진 것이 화가 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떨어진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떠다 밀지 않은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닙니다." 그러거든. "그만하면 됐구나."

그러고는 이튿날서부터는 또 뭘 해 줬느냐 하면 날콩물 있죠? 날콩물에다가 솔 이파리를 찧어서 그 시퍼런 물에다가 날콩가루를 타서는 한 그릇씩 먹는 겁니다. 그걸 먹고 나니깐 설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앉았다 섰다 할 수가 없이 그냥 앉으면 서야 하고 서면 앉아야 하고, 이렇게 그냥 뭐, 하루 종일 그냥 드나드니까, 똥이 나와서 그냥 죽겠어서 벌떡 일어나니까, 큰 작대기로다가 그냥 후려치며 "나는 먹고 된똥을 누는데 너는 어째서 먹고 설사만 하느냐!" 이거야. 물지똥만을 누느냐 이거야, 응?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난리를 쳐도 "이놈아, 설사하느라고 볼일을 못 보니, 된똥을 못 누니 어찌 네가 막대기 하나, 손가락 하나 쳐들 수가 있겠느냐?" 하곤 "술수만 배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느니라." 하곤 "그건 급할 때 쓸 수 있는 거지, 진짜 우리가 도를 이루려면 그게 아니니라." 하고선 그냥 어떻게 작대기로 때리는지 설사똥끝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날부터 된똥을 누기 시작했다는 얘깁니다, 허허.

사명 대사가 그만큼 했으니 지금까지도 일본은 사명 대사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때문에, 하다못해 우동 가게 앞에까지도 그 개집처럼 해 놓고 있죠. 얼마나 놀랐으면…, 허허허. 그래서 지금 '하오리'를 입은 것도 조선의 도포를 보고 그렇게 했고 참, 공깃밥 먹는 것도 우리 발우공양 하는 걸 보고, 또는 각반을 친 것도 우리 행전을 보고 그렇게 했고, 또 오조 가사를 보고서는 총받이를 만들었죠,

여러 가지로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대전 때 그 폭탄 하나로 인해서 일본이 사경을 헤맸던 그 이치를 생각해 볼 때에 꼭 주면 받고, 받으면 줘야 하는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를 일본이 그렇게 혼나고 난 뒤에야 깨달았

☞ 22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